

##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다문화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2024년 12월 기준) 한국 내 이주민 수는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하고 있다.

최근 조사(2024)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주 연령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60%)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가 65%를 차지해 생활 기반은 점차 향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한국 생활 적응의 경제적·언어적 장벽 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넘버즈 303호>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통합을 더욱 지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비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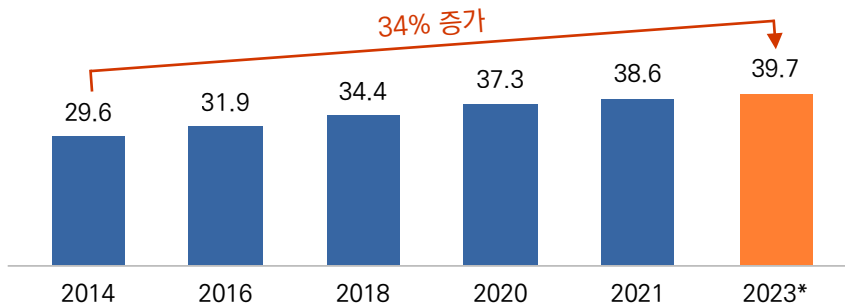
# 01

## [규모와 현황]

###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여 다문화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해당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의 규모를 살펴 본다.
- 행정안전부/다누리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9.7만 명으로 10년 사이 34% 증가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추이 (만 명)



※출처 : 다누리(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결혼이민자 및 인자·귀화자 기본현황 (<https://www.liveinkorea.kr/web/lay1/S1T38C48/contents.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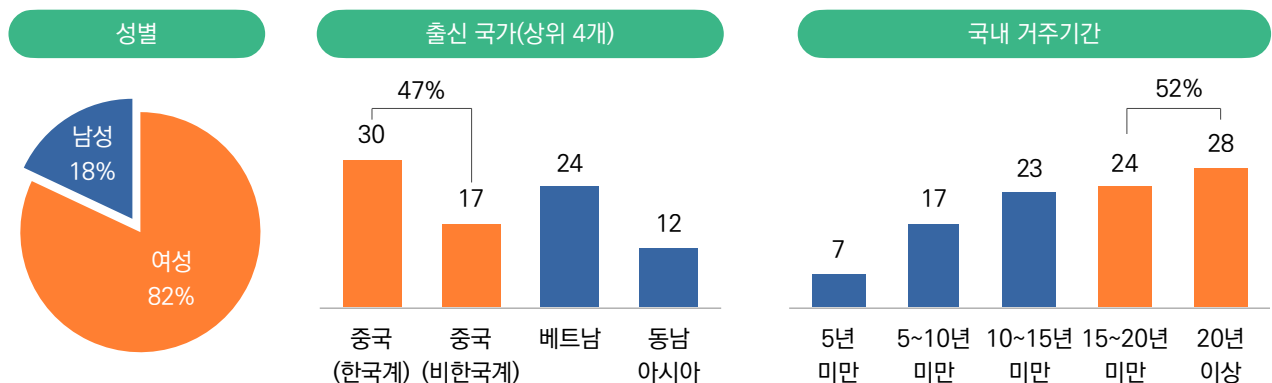
※원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각 연도별 자료 참조

\*2023년 자료 :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4.10.

### 결혼이민자·귀화자 절반(52%), 15년 이상 장기 거주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여성이 82%로, 남성(18%)보다 월등히 많았다.
- 출신 국가는 중국(한국계 30%+비한국계 17%)이 절반 가까이(47%)를 차지했고, 베트남(24%)이 뒤를 이었다.
- 국내 거주기간은 '15년 이상 거주자'가 52%로, 다문화 가구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결혼이민자·귀화자 일반 특성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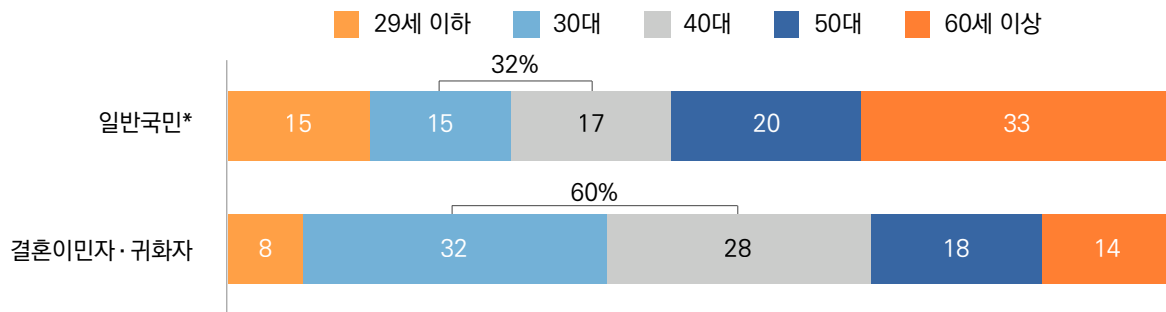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 결혼이민자·귀화자 3040세대 비중, 일반 국민의 2배!

-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0대 32%, 40대 28%로, 3040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국민(3040세대 32%)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주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세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연령대별 구성비 (18세 이상,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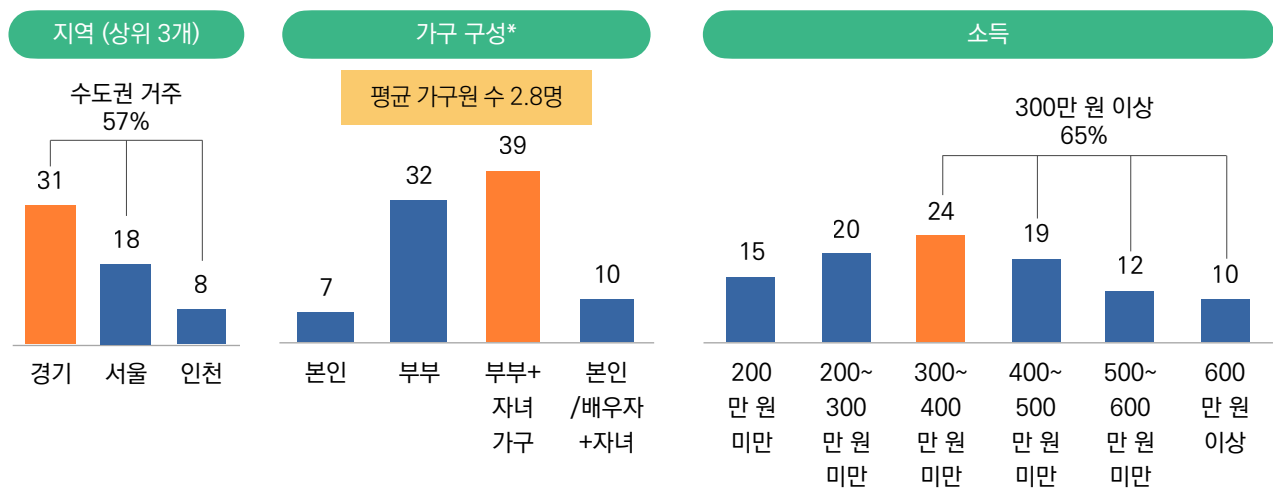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일반국민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

## 다문화 가구 3가구 중 2가구,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일반 특성을 보면, '수도권 거주' 비중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이며, '부부+자녀 가구'(3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소득은 '300~400만 원 미만'(24%)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3가구 중 2가구(65%)가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다문화 가구 일반 특성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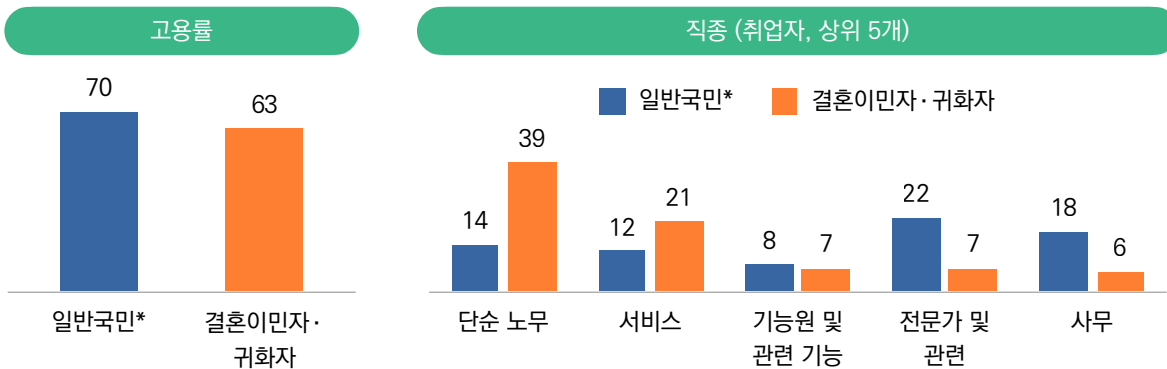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기타 제외

## 일반국민 대비,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 3배 높고, '전문가·사무'는 1/3 수준!

- 경제활동 수준을 가능하고자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일반국민의 고용률 및 직업 직종을 비교해 살펴본다.
- 고용률은 결혼이민자·귀화자 63%로 일반국민(70%)보다 낮았다.
- 직종별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은 결혼이민자·귀화자(39%)가 일반국민(14%)보다 3배가량 높은 반면, '전문가·사무 종사자'(13%)는 일반국민(40%)의 1/3 수준에 불과해, 다문화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자격이나 기술보다는 노동력 자체가 중심인 직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고용률 및 직종 분포 (2024,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일반국민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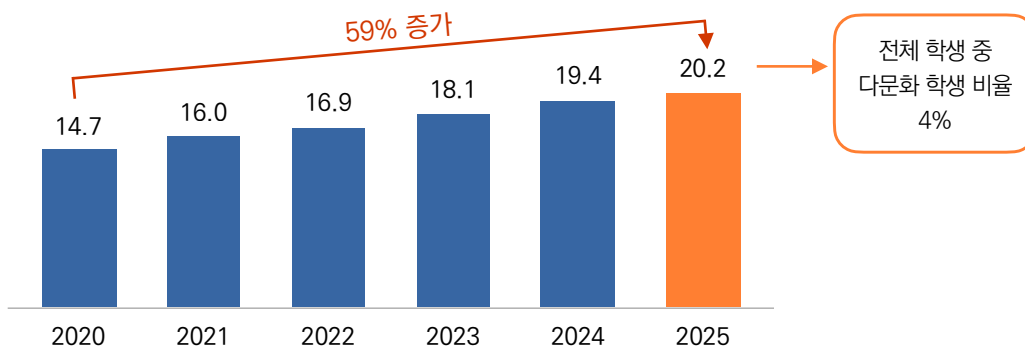
(고용률 :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2&upCd=3>)

(직업별 취업자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8S\\_NEW&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8S_NEW&conn_path=12))

## 다문화 학생 수, 지난 5년 새 59% 증가!

- 이번에는 다문화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본다. 국내 학령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20.2만 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5년간 무려 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다문화 학생 수 추이 (만 명)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5.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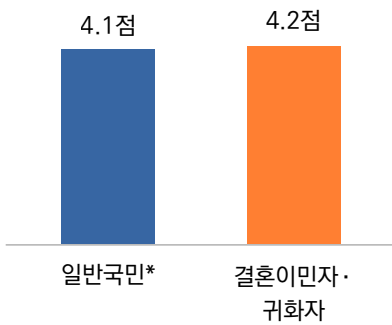
## 02

### [가족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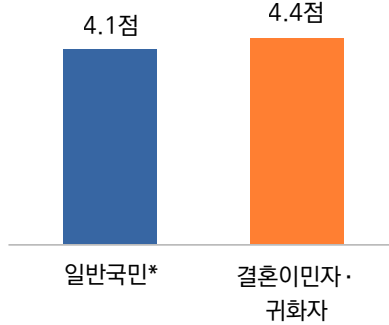
## 다문화 부모, 자녀 만족도는 일반국민보다 높은 편!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자녀 만족도’를 한국의 일반국민과 비교해 살펴본 결과(5점 척도), 배우자 만족도 평균은 4.2점, 자녀 만족도는 4.4점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만족도는 한국 일반국민과 차이가 없는 반면, 자녀 만족도는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그림] 자녀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일반국민 출처 : 통계청, 2024 사회조사 결과, 2024.11.12.(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척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로 환산하여 추정치를 구함)

## 자녀 양육의 어려움, 만 5세 이하의 경우 ‘긴급돌봄’!

-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묻은 결과, 만 5세 이하 자녀 부모는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반면, 만 6~24세 자녀 부모는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을 1순위로 응답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림]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당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상위 3개, %)



[그림] 만 6~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당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상위 3개,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어려움 없음 응답 제외

# 03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국민 87%,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류 긍정적'!

- 이번에는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인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본다.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동의율)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국민 87%는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76%는 '서로 사랑한다면 인종과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에는 절반 이상(54%)이 동의해, 앞선 항목에 비해 동의율은 다소 낮았지만, 결혼 수용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긍정률을 보였고, 다문화 결혼에 대해서는 더 동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다문화 가정/인종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일반국민,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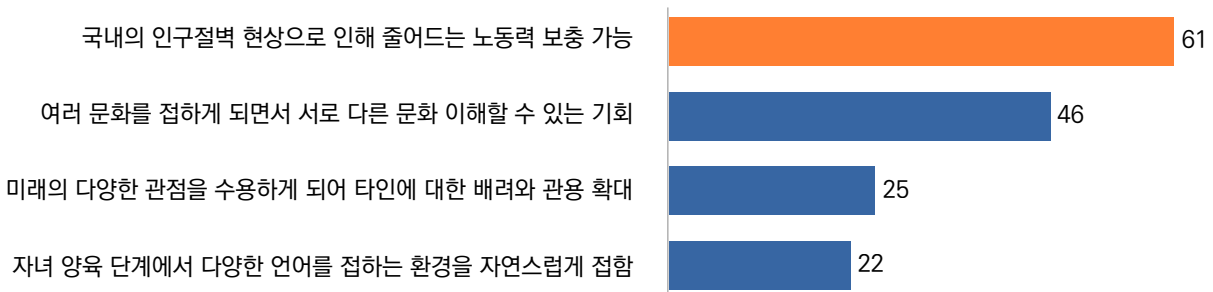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 조사, 2024.07.24.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09.~05.14.)

## 다문화 가정 증가의 장점, '노동력 보충' 기대!

-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장점을 일반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결과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보충 가능성'(61%),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46%)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그림] 다문화 가정 증가의 장점 (일반국민, 1+2순위, 상위 4개,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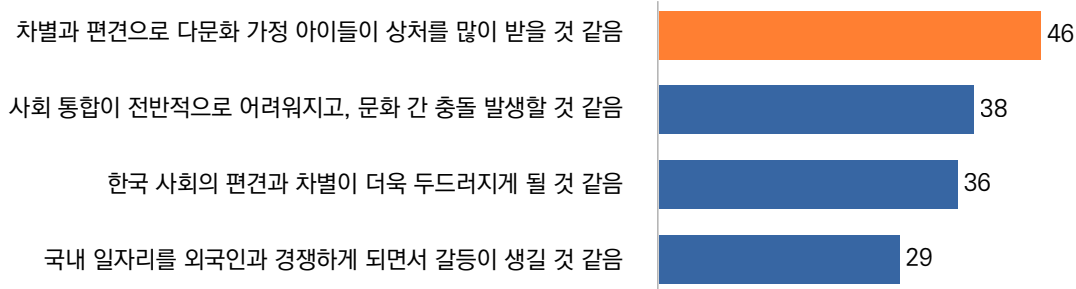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 조사, 2024.07.24.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09.~05.14.)

## 다문화 가정 증가의 단점, ‘다문화 아이들이 겪을 차별/편견!’

- 다문화 가정 증가의 단점으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겪을 차별·편견’(46%), ‘사회 통합의 어려움 및 문화 충돌’(38%), ‘한국 사회 내 편견과 차별 부각/심화’(36%) 등이 지적되었다.
- 앞서 장점과 종합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 증가가 인구·문화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통합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다문화 가정 증가의 단점 (일반국민, 1+2순위, 상위 4개, 중복응답,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 조사, 2024.07.24.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09.~05.14.)

## 이번호 요약

### 1.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 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9.7만 명으로 10년 사이 34% 증가하며(2014년 29.6만 명),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2. 결혼이민자·귀화자 3040세대 비중, 일반 국민의 2배!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3040세대가 60%로, 일반 국민(3040세대 32%)보다 2배가량 높아, 한국인 평균보다 훨씬 젊은 층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민 87%,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류 긍정적'!

- 다문화 가정/인종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국민 87%는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76%는 '서로 사랑한다면 인종과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존재만으로 특별한 다문화 교회 (신치현 저, 이레서원)

## 관련 성경 구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레위기 19장 33~34절)

## 목회 적용점

이번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차지하는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매우 젊은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직종 분포를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우리 사회 기반 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가·사무직 비중은 1/3 수준에 머물러, 사회적·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장벽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다문화 가정을 단순한 '돕는 대상' 혹은 '손님'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회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제적 기여를 존중하며, 신앙 안에서 공동체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가 능숙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예배 통역, 문서 번역 등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성도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자국의 문화/음식을 소개하는 것 등)를 교회 차원에서 기획할 수도 있다.

둘째, 직업적 취약성이 신앙·생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회 차원의 실질적 돌봄이 필요하다. 직업 훈련 연계, 자녀 교육 지원,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교회가 연결 창구가 되어 제공할 수 있다. 또, 교회 내 성도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일대일 또는 가족 단위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배타성이 강한 한국인 정서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만만치가 않다. 교회가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노력들을 통해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지체이자 한국 교회 미래의 동반자로 살아가도록 세워가야 할 것이다.